

# 광주기독교병원 노조 “직장폐쇄 철회”

### “노동자 당연한 권리인 쟁의행위 방해 무리수”

### 병원 측 “환자들의 안정가료 위해 ‘출입금지’”

광주기독교병원이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기독교병원지부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1일 오전 10시 광주기독교병원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병원장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의 요구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독교병원이 전날 오후 9시를 기해 기습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직장폐쇄라는 무리수로 조합원들을 협박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불법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측이 이야기하는 제3세력은 병원을 점거할 계획도 생각도 없다”며 “연대단체는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조합원에게 밤 한 끼를 대접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앞서 병원 측은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자더니 어떠한 대안도 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일방적인 병원 측의 이야기만 되풀이했다”며 “대화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폐쇄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폐쇄는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동안 교섭안을 내지 않고 버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애초 의견에 귀기울일 생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의 요구에 화답하라”며 “폭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생각을 접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최용수 원장 명의의 답화문을 통해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 후 병원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다수의 인원이 무리 지어 진료공간에서 시위에 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기독교병원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전 광주기독교병원 로비에서 '기습적 직장폐쇄 병원장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들의 안정가료와 병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저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병원의 파업 미참가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병원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또 “‘파업 참가자 출입금지’는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병원의 정당한 법적 조치사항”이

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관련자의 병원 시설 출입과 점거를 금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임금체계 개선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노조 제시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이용섭 시장 “민간공원, 특혜·압력 없었다”...檢 수사 에둘러 비판

이용섭 광주시장이 검찰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정례대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각종 사업이나 공사 등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개입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하고, 직원 여러분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칙과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이 원칙과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시중에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직원들의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시의 의사결정시스템과 결정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나 압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현재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예단하여 결론을 내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공원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며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동구, 태풍으로 총장축제 일부행사 조정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티탁’의 영향으로 2일 개막 예정이던 ‘제16회 주역의 총장축제’가 방문객 안전을 고려해 일부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해 치른다.

동구는 1일 오전 임택 청장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2일과 3일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일 주민자치센터 경연예선과 무등아트페스티벌(무등갤러리), 전통채색화 작가전 등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정상 개최하고 축하공연을 포함한 야외프로그램은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된다.

2일 저녁7시로 예정된 개막식은 3일 저녁7시로 연기됐다.

## 서구, 시민공감 자치분권학교 운영

광주 서구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공감 자치분권학교’를 운영한다.

지난 9월 26일과 10월 1일 진행된 자치분권학교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강의는 김우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을 초빙, ‘모두를 위한 마을’이라는 주제로 주민,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남구, 市주관 정보화 정책 연찬대회 최우수

광주 남구는 IT 관련 신기술 습득 및 연구와 토론을 통해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근 광주시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정보화 정책 연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제25회 광주시 정보화 정책 연찬대회’가 열렸다.

이날 연찬대회에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정부부서 직원 15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 북구, 자활근로 사업장 환경개선 공모사업 3곳 선정

광주 북구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장 환경개선 공모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자활 사업장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반 시설 마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광주시에서 선정된 5개 지역자활센터 중 북구에서 3곳이 선정됐다.

이에 북구는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신, 일터, 희망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The드림 채움 장터(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 기능보강 △자활근로사업단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리모델링 △자활근로사업단 노후 장비교체 및 차량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광산구, 제28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1일 광주 광산구가 우산동 풍영체육시설단지 특설무대에서 구민의 자긍심·애향심 고취와 화합 단결을 위한 ‘제28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산구, 시·구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구민현장 퍼포먼스, 구민상 시상, 김삼호 광산구청장 기념사 등으로 꾸며졌다. 이날 김병우 운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위원장이 나눔 저금통 사업 추진, 복지공동체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효·나눔복지’ 부문 광산구민상을 수상했다.

임형택 기자

### “대표음식 한자리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1일 개막...강진만서 3일간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남도의 맛과 멋! 세계로·미래로’ 주제로 11일부터 사흘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맛의 고장 전남의 으뜸가는 대표음식을 한자리에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음식축제가.

청년부 음식경연대회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특별 참여 부스 설치로 청년층 참여를 유도한다.

또 다문화가족, 외국인 유학생·관광객 유치를 통해 남도의 전통음식 맛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생태 보고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 갈대숲을 배경으로 낭만과 멋이 있는 세련된 축제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남도음식전시관에는 주제관과 시·군·관으로 나뉜 다양한 색채와 그윽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남도음식상차림을 전시한다.

남도음식 피크닉홀에서는 22개 시·군의 고유한 단품요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남도음식 명인과 강진 대표음식을 품격 있게 한상 가득 담아낸 ‘남도밥상 한상차림’ 운영으로 남도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받아 이틀간 하루 100명 한정으로 명인밥상과 강진밥상을 판매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